



# 문태준 , 「산수유나무의 농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상징적, 성찰적
- 제재 : 산수유나무
- 주제 :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

## #EBS

### 해제

이 작품은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드리우는 모습을 농부의 농사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시이다. 시인은 넓고 넉넉한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마음의 그늘이 좁아지고 말려드는 인간들의 모습과 대조하여 그 미덕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늘은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주제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

### 구성

- ▶ 1~2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 그늘을 만듦.
- ▶ 3행: 불평을 지닌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권고함.
- ▶ 4~7행: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 그늘을 넓혀 감.
- ▶ 8~9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을 농사지음.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 산수유나무가 만든 결과물①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 그늘에 대한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표현 : 참신한 발상(산수유나무의 그늘을 감각적으로 표현)

↳ 산수유나무가 만든 결과물②위안과 휴식을 주는 미덕,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

↳ 산수유나무와 대비되는 대상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 명령형 어미를 활용함

↳ (안쪽으로 오그라져 말려든다고)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감을 의미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 은유적 표현.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드리우는 과정을 농사에 빗댄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드리우는 과정을 농사에 빗댄: 참신한 발상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을 넓혀 가는 산수유나무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 농부: 정성과 노력을 들여 생명을 가꾸는 농부에 빗대어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미덕을 지닌 산수유나무의 속성을 드러냄, 농부처럼: 직유법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 색채어,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표현함

## #작품의 특징

- 자연물에 대한 참신한 문학적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함.
- 자연물의 모습과 속성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성찰함.



## 백석, 「수라(修羅)」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일상적, 감상적
- 제재 : 거미 가족을 문밖으로 쓸어 버린 경험
- 주제 :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비극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 #EBS

#### 해제

이 작품은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야 했던 1930년대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거미 새끼’와 ‘큰 거미’,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서로 헤어지게 된 상황에 빗대고 있다. 거미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우리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눈물겨운 상황을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세계,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흩어져 있는 현장이라는 뜻의 수라(修羅) 혹은 아수라(阿修羅)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주제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비극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 구성

- ▶ 1연: 거미 새끼 하나를 문밖으로 버림.
- ▶ 2연: 큰 거미를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문밖으로 버림.
- ▶ 3연: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제 가족을 만나라고 종이에 받아 문밖으로 버림.



# 백석, 「수라(修羅)」

↳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남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 시적 대상①    ↳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공간    ↳ 화자의 정서①, 무심함    ↳ 현재형 시제를 활용함

차디찬 밤이다

↳ 감각적 이미지/ 시간적 배경, 상황의 비극성 부각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 시적 대상②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 화자의 정서② 가슴이 짜릿함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 화자의 행위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시적 대상①과 ②를 가족 관계로 생각함    ↳ 이전의 무심한 행위에 대한 자책, 화자의 정서③ 서러워함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짝기도 전이다

↳ 시간의 흐름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거미의 연약한 모습 제시, 대상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킴, 시적 대상③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 화자의 정서④ 가슴이 메이는 듯함

↳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남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 무척 작은 새끼 거미에 대한 연민으로 인한 행위

화자의 정서⑤ 서러움을 느낌

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어린 거미에게 해 줄 수 있는 작은 배려

↳ ①좁고 어두운 곳 ② 이산의 아픔을 겪은 가족들의 재회가 가능한 곳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시적 대상 ①, ②, ③을 가족 관계로 여김, 의인법

↳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함

↳ 화자의 정서⑥ 슬퍼함

## #작품의 특징

-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됨.
-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 시상이 전개됨.



## 곽재구, 「사평역에서」

- 갈래 :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애상적, 서정적, 감각적
- 제재 : 사평역
- 주제 :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

### #EBS

#### 해제

이 작품은 겨울밤 사평역의 풍경과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송이눈이 쌓이’는 사평역의 ‘툽밥 난로가 지퍼’진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화자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차분히 응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감과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

#### 주제

가난하고 소외된 삶의 고단함과 그들을 향한 연민

#### 구성

- ▶ 1~4행: 사평역의 겨울밤 풍경
- ▶ 5~8행: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과 그리움에 잠기는 화자
- ▶ 9~11행: 툽밥 난로 주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
- ▶ 12~16행: 침묵의 의미
- ▶ 17~21행: 겨울밤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 ▶ 22~27행: 사람들의 고단함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보는 화자



## 곽재구, 「사평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 기다림의 대상(‘마지막’, ‘오지 않음’이라는 속성을 통해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고단하고 소외되었음을 암시함)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 공간적 배경      ↳ 계절적 배경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 색채 이미지      ↳ 유리창에 눈이 수수꽃처럼 붙어 있는 모습 : 대합실 밖의 차가운 이미지(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의 차가움을 강조하고 있음)

툇밥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 따뜻한 위안이 되는 존재

그믐처럼 멎은 졸고 /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 직유법      ↳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 따뜻했던 날들에 대한 회상      ↳ 시적 화자

한 줌의 툇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따뜻한 인간애를 드러냄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 살아온 내력에 대한 이야기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 차가운 이미지, 뜨거운 이미지인 ‘불빛 속’과 대조됨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 소설 ‘사평역’의 시작에 인용된 부분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 고향 식구들에게 가져가는 선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 모두들 알고 있었다

↳ 주어진 삶을 묵묵히 수용해야 함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 고단한 삶에 대한 청각적 이미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 고단한 삶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 물건이 거칠게 쓸리면서 잇따라 약간 가볍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의성어

그래 지금은 모두들 /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 고단한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      ↳ 눈꽃에 위안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자정 넘으면 /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상처도 모두 덮이기 마련임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 인생 역정을 상징함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 하나하나 떠올리며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민

### #작품의 특징

-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묘사가 돋보임.
- 비유와 상징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 시적 화자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봄.



## 강은교, 「일어서라 풀아」

- 갈래 :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상징적, 의지적
- 제재 : 풀
- 주제 :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의 각성 촉구

### #EBS

#### 해제

이 작품은 강인한 의지와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민중을 풀에 빗대어 표현한 시이다. 화자는 명령문의 반복과 단호한 어조를 통해 청자인 '풀'로 하여금 저항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중이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 내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의 각성 촉구

#### 구성

- ▶ 1연: 민중이 상처를 딛고 위력을 떨칠 것에 대한 촉구
- ▶ 2연: 고통을 이겨 내고 변화를 주도할 민중이 지닌 힘
- ▶ 3연: 억압적 상황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는 민중의 저력



# 강은교, 「일어서라 풀아」

『일어서라 풀아 / 일어서라 풀아』

↳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민중을 상징함, 『』: 풀아: (시행 반복)(명령의 반복을 통한 의미 강조)

땅 위 거름이란 거름 다 모아 / 구름송이 하늘 구름송이들 다 끌어들이

↳ 풀이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외부의 존재① ↳ 풀이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외부의 존재②

끈질긴 뿌리로 굵힌 얼굴로 / 빛나라 너희 터지는

↳ 강인한 생명력 ↳ 고통과 시련의 흔적

목청 어영차 / 천지에 뿌려라 - 민중의 힘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 의성어, 열망이 담긴 함성, 청각적 심상

이제 부는 바람들 / 전부 너희 숨소리 지나온 것

↳ 새로운 기운, 변화의 조짐 ↳ 변화나 지향의 힘이 모두 민중의 내적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함①

이제 꾸는 꿈들 / 전부 너희 몸에 맺혀 있던 것

↳ 2연 1행과 대구를 이룸 ↳ 변화나 지향의 힘이 모두 민중의 내적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함②

저 바다 집채 파도도 / 너희 이파리 스쳐 왔다

↳ 거대한 힘

너희 그림자 만지며 왔다

일어서라 풀아 / 일어서라 풀아

↳ 1연과 마찬가지로 1~2행을 반복

『이 세상 숨소리 빗물로 쏟아지면 / 빗물 마시고

흰 눈으로 평평 퍼부으면 / 가슴 한아름

↳ 색채어 ↳ 의태어 ↳ 명령형 어미

쓰러지는 풀아』 / 영차 어영차 / 빛나라 너희

『』: 고난이 닥치면 그 고통을 겪어 내는 민중의 모습 ↳ 풀, 의인화

『죽은 듯 엎드려 / 실눈 뜨고 있는 것들』

↳ 직유법 『』: 현실의 시련을 견디며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모습

## #작품의 특징

- 명령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렬하게 전달함.
- 자연물인 ‘풀’을 의인화하여 청자로 표현함.
- 동일한 시어와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 이성부, 「산길에서」

- 갈래 :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교훈적, 사색적
- 제재 : 산길
- 주제 : 산을 오르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얻게 되는 깨달음.

### #EBS

#### 해제

이 작품은 산길을 걸으며 깨닫게 된 바를 읊은 시이다. 화자는 산에 오르는 체험의 과정에서 자신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과거에 누군가 만든 길을 따르는 것임을 생각하게 된다. 이 때 길은 선조들, 즉 과거의 민중이 힘겨운 삶의 과정에서 부질없이 보이는 노력의 되풀이로 만들어 놓은 역사를 의미하게 된다. 화자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이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이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하는 까닭을 자각하게 된다.

#### 주제

산을 오르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얻게 되는 깨달음

#### 구성

- ▶ 1~5행: 산길에서 가슴 벅참을 느낀 까닭을 아는 화자
- ▶ 6~8행: 먼저 걸어가며 산길을 만든 이들을 좇아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이 난 화자
- ▶ 9~12행: 산길을 만든 이들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화자
- ▶ 13~17행: 산길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된 화자



## 이성부, 「산길에서」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견게 하는 그이들이

↳ 과거에 이 길을 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 단정적 어조, 시의 화자가 표면에 나타남    ↳ 1행의 '이 길을 만든 이들'

지금 조릿대밭 높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이들'이 모습을 바꾸어 찾아온 것으로, 화자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존재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 이 길을 따라 떠나고 싶게 만드는    ↳ 반복을 통한 의미 강조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이들 옛 내음이라도 말고 싶어

↳ 후각적 심상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 나지 않았더니

↳ 산길과 대조

↳ 의문형 어미를 활용함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 힘겹게 사는 사람들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 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 그 누구든 길을 다지는 데 일조하기에 무의미한 걸음은 없다는 것

↳ 화자가 깨달음을 얻은 것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 불필요하거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실은 그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 12행에서 말한 '내가 배운 것'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 / 이리 힘들고 어려워도

↳ 삶, 역사 등을 상징함

↳ 명사로 시행을 종결함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 자신이 현재 이 길을 걷는 일도 '그이들'의 '부질없는 되풀이'처럼 가치 있는 일이므로

### #작품의 특징

- 설의법, 도치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함
-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역사의식을 깨달음.
-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깨달음과 의지를 부각함.



##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갈래 :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회고적, 서사적, 비극적, 묘사적
- 제재 : 아버지의 죽음
- 주제 :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유랑민들의 비참한 삶

### #EBS

#### 해제

이 작품은 이국땅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의 모습과 그로 인한 가족의 애통함을 형상화한 시이다. 이 작품 속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떠나 고된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처지를 잘 보여 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서술로 아버지의 죽음을 담담하게 묘사하여 절제된 어조를 띤 점, 여운을 남기는 수미상관의 구성을 취한 점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 주제

이국땅에서 아버지의 쓸쓸한 임종을 지켜야 했던 비통함

#### 구성

- ▶ 1연: 아버지의 죽음과 풀벌레 소리
- ▶ 2연: 변변한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 ▶ 3연: 아버지의 죽음
- ▶ 4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가족의 슬픔



##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집도 아니고 / 일갓집도 아닌 집

↳ 친척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 비참한 죽음 암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最後)의 밤은

↳ 빈곤한 현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청각적 심상, 비극성 고조

노령(露領)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 키운

한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만(灣)의 파선도

↳ 러시아 아무르지역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 러시아 도시 니콜라예프스크(1930년대는 일제의 수탈이 극심했던 시기, 강제지용 및 이주민들이 늘어나 민중들의 국외 이동이 빈번했음.)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깔았고

↳ 아버지의 꿈

↳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停止)를 가르쳤다

때늦은 의원(醫員)이 아모 말 없이 돌아간 뒤

↳ 객사 현장을 담당하고 사실적으로 전달

이웃 늙은이 손으로 / 눈빛 미명은 고요히 / 낮을 덮었다

↳ 무명의 방언

우리는 머리맡에 엮디어 /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最後)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화자의 슬픔을 대변

『』: 가장의 죽음은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연상(수미상관식 구성)

### #작품의 특징

- 절제된 어조로 화자의 슬픔을 표현
-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비극적인 분위기를 강조
- 상황의 객관적 서술을 통해 비극성 고조
- 수미상관의 구성



## 김종길, 「성탄제」

- 갈래 :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회상적, 주지적, 문명 비판적
- 제재 : 아버지의 사랑
- 주제 :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인정이 사라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 #EBS

#### 해제

이 작품은 장년이 된 화자가 성탄절 가까운 어느 겨울날, 옛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변해 버린 도시에 내리는 눈을 맞으며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 주셨던 헌신적인 사랑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이다. 눈을 매개로 한 회상의 구조,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 등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인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주제

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

#### 구성

- ▶ 1~6연: 어린 시절, 아픈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따 오신 일에 대한 기억
- ▶ 7~10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서러운 서른 살이 되어 불현듯 느끼는 그리움



## 김종길, 「성탄제」

『어두운 밤 안엔 / 바알간 숯불이 피고,』

↳ 시적 허용 『』: 어둡고 우울한 풍경이 [바알간 숯불이 피고]에 비해 대조적이다.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 병에 걸려 누워 있는 '나'를 빗대어 표현

이윽고 눈 속을 / 아버지가 약(藥)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 고난과 시련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 그 붉은 산수유(山茱萸) 열매 -

↳ 영탄

↳ 약을 뜻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형상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 유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해 주는 표현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 촉각적 심상, 나를 위해 약을 구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시련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 시적 근거

어느새 나도 /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 시상의 전환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 붉은 산수유 열매에서 느껴지던 감동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 눈, 눈은 붉은 산수유 열매와 색채감 있게 대조되며 과거의 시간을 선명하게 떠올려 고난 속에서 아들을 위해 열매를 따 오던 아버지의 사랑을 부각시킴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 현대 문명의 이기 속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나의 모습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 아버지의 사랑의 시간을 넘어 영원함을 의미함

### #작품의 특징

- 과거와 현재, 시골과 도시라는 배경이 대칭 구조를 이룸.
- 색채의 시각적 대비('어두운 밤', '바알간 숯불', '붉은 산수유 열매' 등)와 냉온의 촉각적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형상화함.
-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독백적 어조를 사용함.
-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봄.



## 이육사, 「광야」

- 갈래 :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상징적, 저항적, 미래 지향적
- 제재 : 광야
- 주제 :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

### #EBS

#### 해제

이 작품은 광야라는 광대한 공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고난 극복 의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태곳적 이래로 형성되어 온 광야의 모습을 신성하게 묘사하고, 그 위에서 민족의 역사가 태동한 상황을 떠올린다. 그리고 암담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주제

민족사에 대한 전망과 현실 극복 의지

#### 구성

- ▶ 1연: 태초의 광야(과거)
- ▶ 2연: 광야의 신성성(과거)
- ▶ 3연: 오랜 시간의 흐름과 민족사의 태동(과거)
- ▶ 4연: 시련의 상황과 현실 극복 의지(현재)
- ▶ 5연: 희망적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염원(미래)



## 이육사, 「광야」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 태초                      ↳ 천지가 개벽하는 광경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설의법

↳ 생명의 기적, 대유법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 의인법                      ↳ 활유법-산맥의 형성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 광야는 태초의 신성함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므로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 세월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 활유법. 오랜 세월의 경과를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한 것에 비유하여 표현함.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큰 강(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 광야에서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었음을 표현함.

지금 눈 내리고

↳ 고난과 시련의 현실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시적 화자의 고고한 의지, 쉽게 꺾이지 않는 민족의 강인한 기상을 드러냄.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자기희생의 자세, 화자의 단호한 의지가 드러남.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 먼 훗날에- 이상 실현이 쉽지 않지만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화자의 강한 염원이 드러남.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 조국 광복의 상징.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이상을 실현해 줄 위대한 영웅, 미래 역사의 주인공

이 광야(曠野)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 정신적 초극. 이상 실현의 염원.

### #작품의 특징

- 독백적 어조로 내면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 광활한 공간과 유구한 시간을 조화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눈과 매화의 대조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과거 - 현재 - 미래’의 시간적 추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종결 어미 ‘-리)라’의 사용으로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함.



## 김관식, 「거산호(居山好)2」

- 갈래 :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탈세속적, 자연 친화적, 동양적
- 제재 : 세속을 초월한 삶
- 주제 : 자연과의 동화 / 세속을 벗어나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

### #EBS

#### 해제

이 작품은 산에 대한 묘사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시인의 생각과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 주는 시이다. 화자는 변함없이 푸름을 간직한 산을 인간과 대비하고, 산의 모습에서 교훈적 덕목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산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곳으로 인식하며, 맑고 깨끗한 산의 모습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이렇게 형상화된 산의 모습에는 자연을 속세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 인간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동양적 자연관이 투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주제

산을 본받고 산과 동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

#### 구성

- ▶ 1~4행: 변함없는 산에 대한 지향
- ▶ 5~8행: 산의 덕성과 산에 대한 사랑
- ▶ 9~11행: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장소로서의 산
- ▶ 12~15행: 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김관식, 「거산호(居山好)2」

오늘, 북창(北窓)을 열어,

↳ 산을 바라보는 매개체

장거릴\* 등지고 산(山)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太古)로부터 푸르려 온 산이 아니냐.

↳ 가변적인 인간과 대조되는 불변적인 자연

고요하고 너그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峨峨)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에 심취된 모습을 표현함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 꿈같은 산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장거릴: 장이 서는 거리를.

\*아아라히: 산이나 큰 바위 따위가 험하게 우뚝 솟아.

### #작품의 특징

-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대비하여 대상의 의미를 강조함
-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말을 건네는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함.



## 오장환, 「종가」

- 갈래 :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묘사적, 상징적
- 제재 : 퇴락한 종가의 모습
- 주제 : 피폐해진 종가의 모습을 통해 바라본 무너진 봉건 질서

### #EBS

#### 해제

이 작품은 퇴락하고 피폐해진 종가의 모습과 봉건적 위세를 잃고 살아가는 종갓집 영감님의 모습을 통해 무너진 봉건질서의 모습을 드러낸 시이다. 종가는 한 문중에서 만이로만 이어 온 집안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종가는 폐쇄적이고 어두운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고, 가족들은 대립하고 분열된 상태로 흩어져 있다. 게다가 유교적 중범 원리의 상징이며 종가에서 최고의 존중과 존경을 받았던 신주는 희화화되어 그려진다. 동네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유지되었던 과거 종가의 권위가 사라진 상황과 소작인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며 살아가는 종갓집 영감님의 모습을 통해 유교적 봉건 질서가 무너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피폐해진 종가의 모습을 통해 바라본 무너진 봉건 질서

#### 구성

▶ 폐쇄적이고 어두운 종가의 분위기 → 분열된 가족들의 상황 → 어수선한 제사 분위기 → 과거 동네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종갓집의 권위 → 현재 고리대금을 하며 살아가는 종갓집 영감님



## 오장환, 「종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 종가의 폐쇄적이고 어두운 모습이 제시됨    ↳ 시적 대상 제시    ↳ 종가의 후손들이 분열되어 흩어져 나감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 들은 대머리에

↳ 종가의 불화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 평소신주를 방지해두면서도 귀한 무기나 되는 듯이 아끼며, 제삿날에는 특히 귀하게 여겨서 신주를 제사상 위에 날쌔게 올려다 놓음.(종가의 신주가 제삿날에만 대접받는 상황을 희화화함.)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Ning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

↳ 여수선한 종가의 제사 분위기를 엿볼 수 있음.

종 오빠. 『한참 찜찜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 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

↳ 제사 지내러 오는 친척들을 열거함

들을 곧 - 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  
『』: 과거 동네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종갓집의 모습을 형상화함.

들뻗들할 달갈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 - 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고리대금을 하며 살아하는 종갓집 영감님의 모습을 통해 무너진 유교적 봉건 질서의 모습을 드러냄.

\*지손: 말이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신주: 죽은 사람의 위패.

\*뒷밥: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들을 위해 차리는 상.

\*모말굴림: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려 무릎이 그 안에 끼이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형벌.

\*중복사: 승도복숭아. 천도복숭아.

### #작품의 특징

-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대가족 제도가 잘 유지되면서 종가의 권위를 아래로부터 받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대립하고 분열되어 있음을 부각함.
- 유교적 종법 원리의 상징이며 종가에서 최고의 존중과 존경을 받아 왔던 신주를 희화화함으로써 유교적 봉건 질서가 무너진 종가의 모습을 드러냄.
-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과거 드셨던 종가의 권위를 ‘찜찜’으로, 현재 퇴락한 종가의 모습 ‘뻗들뻗들’로 효과적으로 전달함.



## 김영랑, 「집」

- 갈래 :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성찰적
- 제재 : 집
- 주제 : 서럽고 적막한 처지와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

### #EBS

#### 해제

이 작품은 ‘집’이라는 소재를 통해 화자의 정서와 처지를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내 집 아니라 / 너 집이라’ 라고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흰 구름’을 바라보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주제

서럽고 적막한 처지와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

#### 구성

- ▶ 1연: 새들이 빈 등지로 돌아오길 바람.
- ▶ 2연: 오랜 세월 쌓인 서러움을 느낌.
- ▶ 3연: 은행잎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맑은 바람을 느낌.
- ▶ 4연: 화자를 찾아오는 이 없는 고독한 공간임을 인식함.
- ▶ 5연: 지나온 삶에 대해 성찰함.



## 김영랑, 「집」

내 집 아니라

니 집이라 - 화자와 청자가 제시됨. 니(너)는 새를 가리킴

날르다 열린 돌아오라 - 화자가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 너의 집이니까 날아다니다가 열린 돌아오라고 함.

처마 난간이

니들 가여운 속삭임을 지음(知音)\*터라 - 화자가 새들의 지저귀음을 이해한다는 뜻으로서, 화자가 새들을 벗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함. 즉 화자가 외롭다는 것을 나타냄.

내 집 아니라

니 집이라

아배 간 뒤 머언 날 -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훗날에 (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신 집)

아들 손자 잠도 깨우리 - 아들, 손자의 잠도 깨우겠구나.

문틈 사이 니는 몇 대째 설워 우느뇨 - 문틈 사이에서 너는 몇 대째 설워하며 울고 있으나, 문틈 사이에서 오랜 동안 울며 지내므로 아이들이 잠을 깨겠다고 함.

내 집 아니라

니 집이라

하늘 날던 은행잎이

좁은 마루 구석에 품인 듯 안겨 든다 - 은행잎으로 보고 맑은 바람을 느낌

자고로 맑은 바람이 거기 살았니라

오! 내 집이라

열 해요 스무 해를

앉았다 누웠달 뿐

문밖에 바쁜 손[客]이

길 잘못 들어 날 찾아오고 - 아무도 찾지 않은 곳을 느낌

손때 살내음도 저렸을\* 난간이

흔히 나를 안고 한가하다

한두 쪽 흰 구름도 사라지는디

한 두엿 저질러 눈 부끄러운 짓

파아란 하늘처럼 아슴푸레하다 - 지나온 삶을 되돌아봄

\*지음: 새나 짐승의 울음을 가려 잘 알아들음.

\*저렸을: 절이여 배어들었음.

### #작품의 특징

- 이웃들은 유랑을 떠나고 혼자 오래된 고가를 지키면서 어두운 가족의 이야기를 묘사함.
- 집은 보금자리로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픔을 함께한 일제 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드러냄.